

수동식으로 받는 은혜

수년 전 집 뒤에 있던 전봇대가 너무 오래되어 2주 후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전기회사로부터의 통보를 받았다. 그날이 되어 집만큼이나 큰 크레인으로 전봇대를 새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 일을 쉽게 생각했던 나는 7시간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아침 8시에 전기가 꺼졌는데, 오후 2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전기 공사가 잘못 되어 오랫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냉동실에 쌓아 놓은 음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 이유는 일 년 전 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전기 코드를 뽑은 후 다시 돌려놓지 않아 냉동칸 안에 있던 음식 전부를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발을 동동 구르며 전기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전기가 깜빡깜빡 하더니 들어왔다.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의 생활에 전기가 없다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전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사람들과의 전화도, 깨닫는 공부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방송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불과 40여 년 전 만해도 손으로 했고, 눈으로 했으며, 발로 직접 찾아 갔고, 입으로 말했으며, 가슴으로 경험했던 기억이 났다. 그 때에는 경건의 시간을 하며 감격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노트에 기록했고, 모든 것을 손으로 넘겨가며 읽어야 했으며, 눈을 감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수동식이었던 것이다.

많은 연구 끝에 편리해지고, 시간을 아끼게 되었고, 지름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전 보다 하나님을 향한 맑은 마음은 뒷걸음질 치고 있거나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보다는 편리함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장 5-6절)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마음”이라고 하셨고, “범사”라고 말씀하신다. 나에게는 수동식 삶을 살라는 것으로 들린다. 하나님께서 나의 얕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다시 나의 다리를 직접 접어 무릎을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슴으로 엎드리는 것에는 전깃불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